

호남 헌재소장 날린 국민의당 “우리가 결정권 가진 정당”

여당 책임론...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역풍 불가피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靑, 새 후보 인사검증 돌입

김이수 부결 후폭풍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론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표결 직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근소하지만 통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당장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야당은 ‘당연한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부결 원인은? = 표결 결과는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다.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찬성,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다.

국회의석 수는 민주당 12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40석이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당 의원의 절반만 찬성표를 던져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진보정당인 새민중당 2명과 정세균 의장,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부결 원인을 국민의당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생각이 달랐다. “평상시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당 의원 중 20~22명 정도는 찬성한 것으로 본다”면서 “무기명 투표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며 기독교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부결을 압박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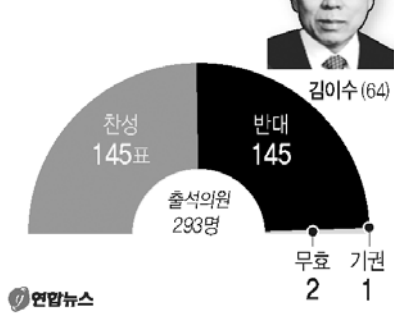
◇파장과 전망=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을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여당 내에서는 안이한 대처를 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은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반대 전선에 힘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임명동의안 부결 후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도 “탄핵 보복, 정권교체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인사 관련 표결을 부결시켰다는 점에서 반대 전선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에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표결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요했던 것 같다”는 질문에 “존재감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으로선 호남 출신 인사로서 특별한 흠결이 없었던 김 후보자의 인준 부결에 부담감이



‘당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난감해 하고 있다.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장인이 광주 대형교회에서 25년간 담임목사를 하며 소속교단을 이끌고 있다. 또 처 이모부 4명이 목사, 동서는 신학대인 광신대 총장이자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호남을 모태로 한 국민의당이 호남출신 인사를 부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헌재 운영은=당분간 헌재는 다

시 ‘소장 없는 재판관 8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새로운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소장 권한대행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청와대는 새 헌재 소장 겸 헌법재판관을 물색해 지명하기 위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기존 재판관 중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물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 헌법재판관 중에

선 대통령 지명 묵인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 재판관이 공석이다. 청와대는 새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동시에 그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모양새를 갖추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9명의 재판관 중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기국회 첫날부터 신경전

與 “한국당 대정부 질문 위법”... 한국당 “대법원장 결사 저지”

여야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뤄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조찬회동 때부터 시작됐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

였지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구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12~13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이 있는 만큼 그 직후인 14일 개 표결에 부치는 의견을 냈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카드를 꺼냈으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애초 지난 5일로 예정됐다가 국회 보이콧 때문에 불발됐던 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날짜를 다시 잡는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조찬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대표연설을 하는 데) 주호영·김동철 원내대표도 동의를 해주고 갔고 의장도 긍정적 입장인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직 최종 대답을 안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등관’ 자적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

문을 하려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48시간 전에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 “한국당은 참석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참여를 어렵게 결정하고 정상화하는 마당에 법적 요건을 운운하고 있다”며 “집권당으로서 정치에 대한 책임 의식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는 향후 여야 격돌의 제2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문재인 정권의 5년 좌파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 무소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며 결사저지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뉴라이트 사관·창조과학 ‘도마위’ “시대에 맞는 인식 필요” 與도 비판

박성진 장관 후보 청문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1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과 아파트 분양권 다중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역사관 때문인지 박 후보자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했던 여당 의원들의 태도도 냉랭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다중계약서 거래 등을 거론,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언론에 난 것만 해도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 행사에 각각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초청한 것과 관련, “춧불정국

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느냐”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 삼았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들어섰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장관직에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위원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답변 태도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 박 후보자가 전날 국회를 찾아 별도의 승인 없이 ‘청문회 리허설’ 한 것에 대해 장 위원장이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정미 “‘노동주도 성장’ 새 엔진 달아야”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1일 “재벌 공화국 60년을 뛰어넘어 ‘노동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며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다.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에 산업민주주

의를 더해 노동주도 성장에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를 보완한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은 지지를 50%면 다음 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정당 지지율과 의석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 이 대표는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 금지 못 박아 ‘젠더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정책과 관련,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북특사 파견과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인원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28	18
	국제 한국어교원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사범	음악학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예능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시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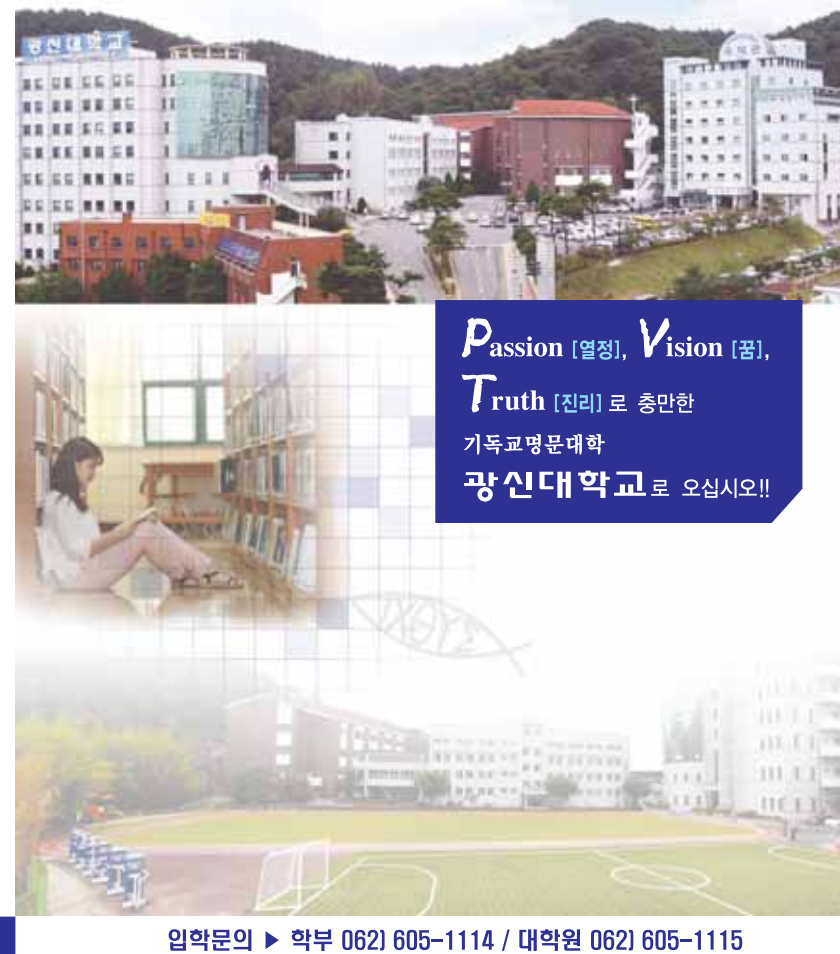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석사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통합예술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